

朝鮮時代 誌石函 연구

오 임 숙*

〈목 차〉

- I. 머리말
- II. 材質上 分類
- III. 誌石函 製作과 埋納
- IV. 時期別 特性
- V. 맺음말

국문요약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 죽기 마련인데 사후에는 생전의 흔적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삶의 흔적을 남기는 수단으로 誌石을 들 수 있다. 지식에는 出生에서 死亡 후 埋葬에 이르기까지 被葬者의 신분이나 系譜, 婚姻 등을 포함한 많은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기에 한 개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지석이 등장하지만 誌石文化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서민들이 상당부분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꽃이 핀다. 고려와 달리 조선시대 접어들면 지석을 그대로 땅속에 묻기 보다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誌石函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지석함의 재질을 살펴보면, 石製, 磁器製, 土製, 木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품계별 분석에선, 대부분 三品 이상의 고위 관직자에 한정되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석 제작과 매납은 『世宗實錄』, 『國朝五禮儀』, 『朱子家禮』, 『喪禮備要』, 『四禮便覽』 등에서 葬事지내는 날, 壙의 앞이나 인근에 埋納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지석함도 葬禮期間에 준비해서

본 논문은 필자가 동아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조선시대 誌石 연구』, 2012)의 121~143쪽에 실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 창원문성대학 강사

장사를 지내는 날에 壙의 앞이나 인근에 매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식함은 15세기부터 등장하지만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왕실 및 고위 관직자 일부에서만 제작되어졌다. 이것은 『朱子家禮』의 중요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되었지만 완전히 정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후 16세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17세기 이후부터 증가하여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현저히 증가하며, 이전의 石製函에서 磁器製函의 형태로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19세기 접어들면 고위 관직자 사이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형태의 圓板形 誌石이 대유행을 한다. 이 원판형은 대부분 지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函을 만들었는데, 函도 圓板形 誌石의 모양과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였다. 또한 지식함은 表題文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예를 石製를 비롯해 磁器製, 土製函에서도 찾아 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주제어 : 墓誌銘, 葬禮, 誌石, 誌石函, 表題文, 被葬者

I. 머리말

誌石은 장례절차 마지막에 埋納하는 葬禮用具로, 거기에는 生沒에서 埋葬에 이르기까지 被葬者에 대한 생생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적인 行蹟을 비롯하여 당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史料的 역할도 할 수 있다. 사실 碑石은 여러 이유로 亡失 가능하지만 땅 속에 埋納하는 이 지식은 망실이나, 파괴, 노출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 또한 세월이 많이 흘러도 피장자의 行蹟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고, 立碑할 형편이 못되거나 碑石만으로 불안할 경우에도 지석을 매납했다.

지석 제작은 喪葬禮 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삼국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음은 분명하다.²⁾ 고려시대 유행했던 대형의 石製 誌石³⁾과 달리 조선시대는 소형의 磁器製 誌石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형의 磁器製 誌石은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⁴⁾ 이 보관시설을 誌石函이라 한다.⁵⁾

본 연구는 조선시대 지식함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다. 지식의 기원은 학자나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漢代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의 명칭⁶⁾을 비롯하여 기원과 유래,⁷⁾ 형태와 재질⁸⁾ 등 지금까지 지식에 관한

1)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71年 公州 宋山里에서 발견된 百濟 武寧王 부부의 陵이다. 이 陵에서 王과 王妃의 誌石이 발견되었는데, 被葬者의 신분과 死亡 그리고 埋葬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있어 三國時代 王陵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被葬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이 되었다. 또한 誌石의 내용을 통해 그동안 文獻으로만 전해져오던 百濟의 葬送(3年 동안의 葬禮期間과 假埋葬의 風習)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吳任淑, 『조선시대 誌石 연구』,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1쪽.

2) 高句麗는 黃海道 安岳郡 柳順里 安岳3號墳의 널방 前室 西側벽에서 찾은 冬壽의 것이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가장 오래된 墓誌로 유추된다. 이외 高句麗 墓誌로는 牟婁婁 墓誌와 幽州刺史 嶺의 墓誌가 있다. 위의 墓誌는 모두 벽에 먹 글씨로 남겼다는 특징을 가진다. 吳任淑, 앞의 논문, 2012, 8쪽.

3) 高麗時代의 誌石은 여러 片으로 구성된 朝鮮時代와 달리 대부분 1片 정도에 그치며 크기는 대형이다. 誌石의 보통 크기는 50cm~1m 정도이며, 形態는 세로보다 가로가 긴 長方形의 形態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글자 크기는 대부분 가로 2cm, 세로 2cm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당시 무덤의 넓은 壙, 즉 玄室 크기나 당시 葬送儀禮와 관련되어 생겼다고 본다. 문양을 가한 경우는 주로 신선 십이지, 연꽃, 당초무늬, 구름무늬 등 佛教 또는 道敎的인 장식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4) 연구자가 분석한 誌石函 중 2건(貞徽翁主(1663)와 金尙鏞(1677))만이 誌石函 속에서 石製 誌石이 出土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磁器製 誌石이었다.

5) 誌石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을 誌石函이라 부른다. 간혹 誌石盒으로도 부르지만 本考에서는 誌石函으로 통일하여 적기로 한다.

6) 張哲秀, 『誌石의 名稱과 種類에 대한 一考察』, 『斗山金宅圭博士 回甲紀念 文化人類學論叢』,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⁹⁾ 특히 몇 차례의 지식특별전¹⁰⁾은 지식에 관한 단편적인 정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誌石函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본 연구를 하는 이유이다.

II. 材質上 分類

조선시대誌石函을 재질별로 분류하면石製, 磁器製, 土製, 木製로 나눌 수 있다.

1. 石製 誌石函

石製誌石函은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판석 4장을 組合하여 만든 경우와, 4각의 돌에 홈을 내어 만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石製

1989 ; 趙源喬, 『조선시대의 墓誌·墓誌銘 研究』, 『삶과 죽음의 이야기 朝鮮墓誌銘』, 2010.
 7) 張哲秀는 春秋時代(B.C 722~481), 前漢時代(B.C 206~24 A.D), 魏晉時代(220~265 A.D), 劉宋時代(420~471 A.D)의 4개의 단계로 압축하고 있다. 張哲秀, 『誌石의 發生에 대한 一考察』, 『先清語文』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8) 崔虎林, 『朝鮮時代 墓誌의 種類와 形態에 관한 研究』, 『古文化』25,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9 ; 田勝昌, 『15世紀 位牌形 磁器墓誌와 位牌裝飾 考察』,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4, 湖巖美術館, 1999 ; 金世眞,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研究』,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9) 鄭良謨, 『宣德十年銘 粉青沙器墓誌』, 『美術資料』7, 國立中央博物館, 1963 ; 『安宗茂의 白磁墓誌』, 『考古美術』4-2, 1963 ; 『金在仁 白磁墓誌』, 『考古美術』4-5, 1963 ; 『金景漢 白磁墓誌』, 『考古美術』4-6, 1963 ; 崔夢龍, 『李朝墓誌 數列』, 『考古美術』129-130, 國立中央博物館, 1976 ; 『全南地方 所在의 李朝墓誌』, 『古文化』15,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77 ; 『全南市立博物館 朝鮮朝墓誌 數列(四)』, 『古文化』16,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77 ; 『朝鮮墓誌 數列(其三)』, 『考古美術』136-37, 國立中央博物館, 1978 ; 崔虎林, 『朝鮮時代 墓誌의 種類와 形態에 관한 研究』, 『古文化』25,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4 ; 『高麗初期 墓誌에 관한 一考察』, 『韓國學論集』6,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1984 ;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墓誌에 관한 一研究』, 『韓國學論集』15,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1989 ; 裴永東, 『朝鮮時代 墓誌의 性格과 變遷』,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研究』, 溫陽民俗博物館, 1992 ; 金右臨, 『徽慶洞出土白磁青畫御製思悼世子墓誌銘』, 『美術資料』66, 國立中央博物館, 2001 ; 吳任淑, 『조선시대 誌石 연구』,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10) 1992年 溫陽民俗博物館의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研究> 특별전과 2006年 國立中央博物館의 <다시 보는 역사편지 高麗墓誌銘> 특별전, 2010年 <삶과 죽음의 이야기 朝鮮墓誌銘> 특별전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10年 특별전에서는誌石과 유사한 塔誌, 胎誌, 明器 등도 같이 전시하여誌石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誌石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대표적인 石製 誌石函

NO	被葬者	年代	品階	誌石函 크기	函속의 誌石 材質(數量)
1	仁川李氏	1456	正一品	40.5cm×28.0cm×15.0cm	純白磁(1), 靑畫白磁 誌石(4)
2	沈悞	1655	正一品	47.0cm×41.0cm×13.0cm	函속은 비어 있었음
3	沈宗忱	1662	正一品	47.0cm×41.0cm×9.0cm	函속은 비어 있었음
4	貞徽翁主	1663	正一品	61.0cm×40.5cm×46.2cm	石製 誌石(7)
5	申昇	1665	從六品	49.0cm×45.5cm×28.8cm	靑畫白磁 誌石(6)
6	金尙鍊	1677	無	36.5cm×57.0cm×19.6cm	石製 誌石(2)
7	鄭致達	1757	正一品	48.0cm×55.0cm×53.0cm	靑畫白磁 誌石(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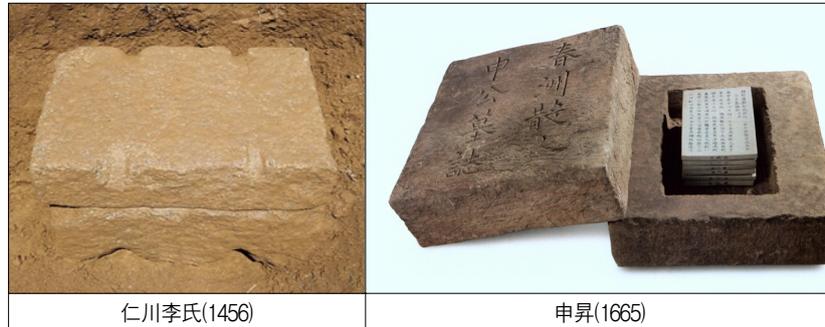
먼저 판석 4장을 組合하여 제작한 경우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世祖의 丈母 <仁川李氏>(1456)¹¹⁾를 들 수 있다. 지석함에서 지석 5편이 출토되었는데 1편은 순백자 지석이고 4편은 靑畫白磁 誌石이다. 지석간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지석함 속의 빈 공간을 흙으로 채워 놓았다. <仁川李氏>(1456)처럼 판석 4장을 組合하여 만든 石製函은 17세기 대거 등장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沈悞>(1655)¹²⁾을 비롯해 <沈宗忱>,¹³⁾ <金尙鍊>(1677),¹⁴⁾ <沈之源>(1691) 등을 들 수 있다.

11) <仁川李氏>(1456)는 1456년 7월 70세에 卒하여 10월에 葬禮를 치렀다. 즉 당시 유행했던 四月葬을 한 셈이다. 이 四月葬은 조선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葬禮期間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예우를 의미한다. 연구자의 분석에 의하면 平原大君(1445)이나 靜惠翁主(1559), 淑儀鄭氏(1581)등 王室을 비롯해 士大夫의 喪에 四月葬을 시행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誌石函 속에서 誌石 5편이 出土되었으며 表題文은 “興寧府大夫人墓誌銘”으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府大夫人’은 朝鮮時代 王의 丈母에게 내린 正一品의 벼슬을 말한다. 女性일지라도 王의 丈母라는 신분은 당시 가장 질 좋은 靑畫磁器 誌石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단단한 誌石函 속에 埋安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京畿道 坡州 出土.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12) <沈悞>(1655) : 誌石函은 墓碣의 下部構造 뒤쪽에 위치해 있었고, 誌石函 뚜껑의 규모는 48.0cm×43.0cm×9.5cm이며 花崗巖으로 만들었다. 誌石函의 크기는 47.0cm×41.0cm×8.5cm 깊이 13cm이다. 京畿道 坡州 出土. 경기도박물관, 『坡州 沈之源 墓 및 神道碑 遺蹟』, 2010, 223쪽.

13) <沈宗忱>(1662) : 墓碣 뒤에서 誌石函이 발견되었는데 誌石函과 뚜껑 사이에는 5cm의 흙이 채워져 있었고 出土 당시 誌石은 발견되지 않았다. 誌石函 뚜껑의 규모는 47.0cm×42.0cm×9cm이며 花崗巖으로 만들었다. 誌石函은 47.0cm×42.0cm×9cm 깊이 13cm이다. 京畿道 坡州 出土.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10, 159쪽.

14) <金尙鍊>(1677)은 1655년 10월 29일 66세의 나이로 卒했다. 12년 후 1677년 淑夫人 江陵金氏가 卒하자 合葬을 하면서 製作했다. 誌石函속에 2편(蓋石板 : 28.5cm×46.8cm×7.8cm, 底石板 : 28.4cm×45.5cm×7.8cm)의 石製 誌石을 넣었다. 글씨는 楷書로 陰刻했는데, 매우 정성스럽고 정교하게 새겼다. 姜大德, 『朝鮮時代 江陵地方 墓誌 小考』, 『嶺東文化』2, 關東大嶺東文化研究所, 1986, 82쪽.



도 1. 仁川李氏(1456)와 申昇(1665) 誌石函

<金尙鏞>(1677)은 4개의 석판으로 石函을 만들고 그 속에 石製 誌石 2片을 相合하여 넣었다. 무관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식함을 제작하여 石製 誌石을 매납한 특이한 경우이다.¹⁵⁷⁾

이와 달리 4각형의 돌에 홈을 내어 만든 지식함으로 <申昇>(1665)을 들 수 있다.¹⁶⁾ <申昇>(1665)과 유사한 형태로 <貞徽翁主부부>(1663)를 비롯해 18세기 申砬의 처 <全州李氏>(1753)와 <鄭致達>(1757)을 들 수 있다. 모두 홈을 내어 石函을 만든 경우이다. <鄭致達>(1757)¹⁷⁾은 函 속에서 13片的 靑書白磁 誌石이 출토되었으며 출토 당시 函 속의 빈 공간은 모래로 채워 지식간의 충격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위의 <표 1>을 살펴보면 <金尙鏞>(1677)을 제외하면 모두 관직자이다. 이처럼 石製 誌石函은 대부분 정1품의 최고 관직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최상

157) 石製 誌石函 중 <金尙鏞>(1677)은 연구자의 분석결과, 유일하게 無官職者이면서 誌石函을 製作한 경우이다.

16) <申昇>(1665)은 1664年 50세의 나이로卒했다. 誌石函 속에서 靑書磁器 誌石 6片이 出土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葬禮 후 21년이 지난 1686年 4월에 移葬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乙巳後二十一年乙丑四月二十四日 巳時自幸州移葬于本郡西面泉靑里西坐之原 配宜人全州李氏 丙寅九月初四日乙酉卒享年七十六 權厝同岡庚午十一月五日午時附左”). 또한 墓의 穴의 깊이가 9尺, 당시 사용했던 石灰가 158가마, 天灰가 5건(“穴深九尺用石灰百五十八石天灰五件”)이라 밝히고 있어 당시의 葬法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國立中央博物館, 『朝鮮墓誌銘Ⅱ』, 2012, 38~44쪽.

17) 鄭致達은 和緩翁主와 동갑내기로 12살에 婚禮를 치러 駙馬가 되었으며, 1737년에 出生하여 1757年 20세의 젊은 나이에 卒했다(“興和緩翁主同年己巳行 吉禮時年十二 丁巳十二月二十七日巳時生 丁丑二月十五日酉時 享年二十”). 床石 右側 下部에서 誌石函과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靑書磁器 誌石 13片이 出土 되었다. 발견 당시 石函에 13片的 誌石을 순서대로 포개고 틈새에 가는 모래를 채워 誌石의 충격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出土된 誌石은 迎日鄭氏 宗中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誌石函은 移葬 시 埋安처리 하였음. 李閔熙, 『京畿 坡州地域 出土 誌石 研究』, 中央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29~36쪽.

의 지식 보관시설임을 알 수 있다. 18세기 英祖의 사위 <鄭致達>(1757)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石製 誌石函은 나타나지 않는다.

2. 磁器製 誌石函¹⁸⁾

전 시기동안 磁器製函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고려 말에 도입된 『朱子家禮』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 인해 儒敎式 喪葬禮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磁器製 誌石의 등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표 2. 다양한 形態의 磁器製 誌石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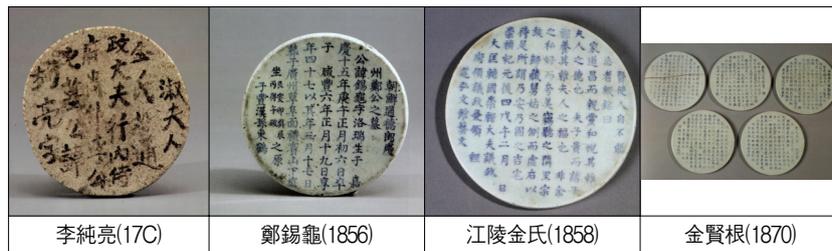
주자가례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지식과 더불어 지식함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중 <金在昌>(1849)은 配 貞敬夫人 德水李氏와 합장 시 제작한 靑畵白磁 誌石函이다.¹⁹⁾ 지식 또한 상류층을 중심으로 장방형의 틀에서 다소 벗어나 그들만의 독특한 형태의 圓板

18) 대표적인 磁器製 誌石函의 크기와 品階, 그리고 所藏處는 다음과 같다. <李喜榮>(1692) : 高 14.4cm 口徑 27.1cm 底徑 18.2cm, 正五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洪聖民>(1710) : 高 23.0cm 口徑 32.0cm 底徑 15.8cm, 正二品,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金在昌>(1849) : 高 22.4cm 口徑 35.0cm 底徑 18.8cm, 從一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安默>(1853) : 高 22.4cm 口徑 35.0cm 底徑 18.8cm, 正三品, 호림박물관 소장. <金聖梓>(1853) : 高 32.0cm 口徑 25.5cm, 從二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姜倍>(1866) : 高 11.8cm 口徑 29.3cm, 無,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金賢根>(1870) : 高 32.0cm 徑 32.5cm, 正一品, 전남대학교박물관 소장. <姜循>(1872) : 高 19.5cm 徑 30.8cm, 從一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濶許氏>(1879) : 高 32.0cm 徑 32.5cm, 從一品,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陽根咸氏>(19C) : 高 24.9cm 底徑 13.3cm, 正二品,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19) 金在昌은 淸衍郡主와 金箕性 부부의 아들이다. 配 德水李氏는 31年 일찍 卒했는데, 1880年 2月 16日에 移葬하면서 추가로 誌石을 묻는다는 기록과 함께 1866年에 王으로부터 ‘貞簡公’이라는 諡號를 받았고, 아들이 文科에 급제하여 현재 判書에 있다는 내용 등을 기록해두고 있다(“府君歿後丙寅贈諡貞簡丙辰二月十六日移葬于楊根西始面大雅洞伏蟹里良坐之原夫人同窆男壽鉉文科今判書孫永元改名永學早歿庶孫女適李慶宰曾孫喜洙文科今承文福正字玄孫幼事實具在前誌今追補焉”). 국립중앙박물관, 『삶과 죽음의 이야기 朝鮮墓誌銘』, 2010, 164~165쪽.

形 誌石이 유행을 하기도 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李純亮>(17C)은 원판형 중 유일하게 鐵畫白磁 誌石이다.²⁰⁾ 정3품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자 지식인데 글 자체는 다른 지식에 비해 매우 粗惡하다. 17세기 <李純亮>(17C)을 비롯해서 19세기 접어들면 圓板形 誌石이 대거 등장한다<표 3>.

표 3. 磁器製 圓板形 誌石



이 원판형은 대부분 지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函을 만들었는데, 函도 圓板形 誌石의 모양과 크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였다. 이처럼 지식의 모양과 크기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磁器製 誌石函의 대표적인 예로 <金聖梓>(1853)와 <金安默>(1853), <金賢根>(1870) 등을 들 수 있다<표 4>.

표 4. 圓板形 誌石과 誌石函



원판형의 경우 장편인 지식이 많은데, <金聖梓>(1853)와 그의 아들 <金安默>(1853)은 10장이 넘는 靑畫白磁 誌石을 函 속에 넣고 있다.²¹⁾ <金聖

20) <李純亮>(17C) : 지름 14.3cm 두께 1.5cm. 圓板의 側面에 <上>이라고 片數를 表記하고 있으며 <上二>는 현재 滅失되고 없는 상태이다. 대구대학교박물관 소장.

21) <金聖梓>(1853) : 13片(靑畫白磁), 지름 20.2cm 두께 2.0cm. 從二品. 誌石函 뚜껑에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諱聖梓之墓”와 “延安李氏附左”라고 적고 있다. 誌石의 側面에는 片數表記를 하고 있으며 1853년에 曾孫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皇明崇禎紀元四癸丑月日 曾孫崇政大夫行議政府右參贊兼判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 五衛都摠府都摠管 經筵日講官景善謹” <金安默>(1853) : 10片(靑畫白磁), 지름 23.5cm 두께 2.0cm. 正三品. 金聖梓처럼 側面에 誌石의 개개 片數(第一, 第二...)와 전체 片數(共十)를 表記하고 있다. <金賢根>(1870) : 9片(靑畫白磁), 지름 21.6cm 두께 1.5cm, 正一品. 函의 뚜껑에 “故上輔國東寧慰金公墓誌”라는 表題文이 쓰여져 있다. 圓板의 側面에는 誌石의 片數를 表記하였으며, 函의 바닥에는 시루모양의 직경 1.6cm의 구멍이 나 있다.

梓>(1853)는 函의 뚜껑에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清風金公諱聖梓之墓”와 “延安李氏附左”라 새기고 있어 부인 延安李氏를 附左했음을 알 수 있다. <金安默>(1853)도 아버지 <金聖梓>(1853)처럼 뚜껑에 表題文을 새기고 있다. 이처럼 지식함 뚜껑에 간단하게 表題文을 새기는 경우는 石製를 비롯해 磁器製, 土製函에서도 그 여러 예를 찾아 볼 수 있다<표 5·6>.

표 5. 誌石函 뚜껑에 表題文²²⁾을 새긴 경우

貞徽翁主(1663)	申昇(1665)	金聖梓(1853)	李延龜(1906)

<貞徽翁主>(1663)와 <申昇>(1665)은 石製函인데,²³⁾ 石函 뚜껑에 表題文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金賢根>(1870)은 주발형태의 磁器函 뚜껑에 “故上輔國東寧慰金公墓誌”라 새기고, <姜儻>(1872)는 “弘文館教理贈左贊成姜公儻誌文誌文”이라 새기고 있다.²⁴⁾

표 6. 뚜껑에 새긴 表題文의 여러 例

貞徽翁主(1663)“朝鮮國全昌君貞徽翁主墓誌”
申昇(1665)“春洲散人申公墓誌”
金聖梓(1853)“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清風金公諱聖梓之墓 延安李氏附左”
金賢根(1870)“故上輔國東寧慰金公墓誌”
姜儻(1872)“弘文館教理贈左贊成姜公儻誌文誌文”
李延龜(1906)“延安李君墓誌銘”

22) 表題文은 누구의 誌石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는 序文으로 誌石의 題目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誌石에는 表題文이 있다. 즉 誌文이 시작하기에 앞서 序頭에 기록되는 하나의 題目과 같은 것으로 表題文은 보통 <品階+官職+本貫+姓+公之墓>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石函 뚜껑에 <貞徽翁主>(1663)는 “朝鮮國全昌君貞徽翁主墓誌”, <申昇>(1665)은 “春洲散人申公墓誌”라고 表題文을 기록하고 있다.

24) <姜儻>(1872)의 誌石函(高 20.2cm 口徑 29.3cm 底徑 16.0cm) 속에서 末角方形의 靑畫白磁 誌石(18.4cm×17.6cm×1.2cm) 4片이 出土되었다. 맨 마지막에는 左議定인 孫子 姜洙(1809~1887)가 기록하여 埋納한다는 내용이다. “不肖孫 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 領經筵事監春秋館事 洙謹誌”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0, 112쪽.

明溫公主의 駙馬인 <金賢根>(1870)은 커다란 주발형태의 靑畫白磁 誌石函이다. 원판형의 靑畫白磁 誌石 9片이 函 속에서 출토 되었으며 지식 측면에는 片數를 표기하였고, 函의 바닥에는 직경 1.6cm의 구멍이 나 있다.²⁵⁷ <安景禕>(19C)는 3片으로 구성된 원판형의 靑畫白磁 誌石인데 현재 지식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판 측면에 새긴 <第一 共五>²⁶⁷라는 기록으로 보아 제작 시 총 5片임을 알 수 있고, 당시 圓板形 誌石에 맞춘 별도의 지식함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²⁷⁷ 경기도 화성에서 출토된 <金海許氏>(1879)²⁸⁷는 커다란 주발형태의 磁器函에서 回回靑으로 쓴 지식 11片이 출토되었다. 函에는 아무런 글자도 쓰여 있지 않으며, 전남대학교박물관의 <金賢根>(1870)처럼 바닥에 3.6cm의 구멍이 나 있고 형태나 크기도 매우 유사하다(도 2).²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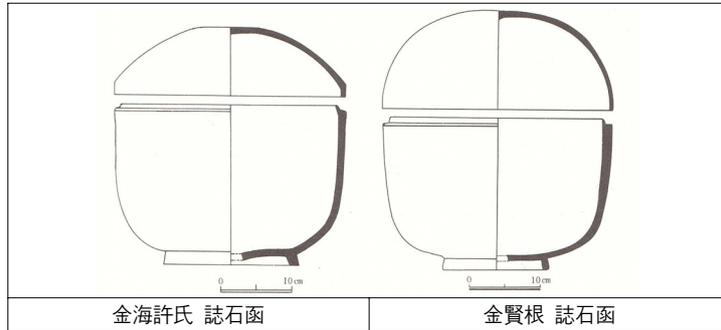
257) 明溫公主의 駙馬인 金賢根은 1868年 8월에 卒하여 10月 挾岡에 임시로 두었다가 1870年 3月, 37年 전에 卒한 明溫公主와 함께 合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明溫公主와 金賢根은 부부지만 明溫公主 誌石은 朝鮮王室에서 계속 사용해오던 烏石製의 長方形인 반면, 金賢根은 당시 高位 官職者 사이에서 유행하던 靑畫磁器 圓板形 誌石(지름 21.6cm 두께 1.5cm)을 磁器函 속에 넣었다. 부부지만 이처럼 誌石의 材質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 신분상에 따르는 社會制度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0, 149쪽.

267) 高麗時代에는 石製 誌石을 큰 長方形의 형태로 製作하여 片數表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朝鮮時代로 접어들면서 誌石의 製作이 증가하였고, 크기도 소형화되었다. 또한 장편의 誌石을 製作함에 따라 誌石의 片數表記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朝鮮時代 誌石의 片數表記 방법은 다양하다. 片數의 表記는 크게 개개의 片數만 적은 경우와 개개의 片數와 함께 전체의 片數를 함께 表記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개의 片數만 적은 경우는 단순히 <一>, <二>, <三>, <四>처럼 숫자만 적은 것도 있고, <第一>, <第二>, <第三>의 경우, <第一張>, <第二張>, <第三張>의 경우, <第一片>, <第二片>, <第三片>의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개개의 片數와 전체의 片數를 함께 적는 경우는 전체 片數가 15片일 경우 <第一>, <第二>, <第三>이나 <第一張>, <第二張>, <第三張> 등 개개의 片數를 먼저 적고 전체 片數인 <共十五>를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체 片數인 <共十五>를 먼저 적고, 개개의 片數를 적기도 한다. 片數表記는 대부분 磁器製 誌石에서 나타나는데, 前面에 표기한 것, 側面에 표기한 것, 後面에 표기한 것이 있다. 吳任淑, 앞의 논문, 2012, 89쪽.

277) 19세기 <安景禕>(19C)는 從九品의 下位 官職者인데, 특이하게 5片으로 구성된 圓板形 誌石이다. 側面의 “永陵參奉順窩安公墓誌銘”이라는 表題文과 <第一 共五>라는 기록으로 보아 製作 시 총 5片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 2片과 5片은 분실된 상태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0, 96쪽.

287) <金海許氏>(1879)는 忠文公 金炳國의 後嗣를 잇기 위해 맞이한 副室이다. 1835년에 태어나 1878年 4月 4일에 卒하여 4月 24日 廣州에서 葬禮를 치렀다. 그리고 葬禮 이듬해(乙卯年) 다른 부인들 곁으로 移葬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灰槨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灰槨과 床石의 中間에서 誌石函이 발견되었다. 床石으로부터 137cm되는 곳이다. 온양민속박물관, 『京畿道 半月地域 安東金氏墓域發掘調査報告書』, 1989, 130~131쪽.

297) <金海許氏>(1879)와 <金賢根>(1870)의 誌石函은 形態와 크기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函 속에 埋納된 誌石 形態가 金海許氏의 경우는 4각을 조금씩 다듬은 末角方形이며, 誌石函 뚜껑에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은 반면, 金賢根은 圓板形 誌石으로 函 뚜껑에 “大匡輔國東寧慰金



도 2. 金海許氏(1879)와 金賢根(1870)의 誌石函³⁰⁾

<金賢根>(1870)과 유사한 크기와 형태의 磁器製 誌石函은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陽根咸氏>(19C)가 있다.

3. 土製 誌石函

土製 誌石函은 <迎日鄭氏>(1830)와 <李延龜>(1906)가 있다(도 3).



도 3. 迎日鄭氏(1830)와 李延龜(1906) 誌石函

吳顯相의 妻 <迎日鄭氏>(1830)는 큼직하게 4각으로 만든 土製函이다. 函이 지석의 表題文 역할을 하고 있는데, 뚜껑에 먹으로 쓰여진 表題文의 글자가 선명하지가 않다. 1830년에 葬禮를 치르고, 1870년에 移葬하여 남편 吳顯相의 묘에 合葬할 때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³¹⁾

公墓誌”라는 表題文을 새겼다는 점이 다르다. 온양민속박물관, 앞의 책, 1989, 131쪽.

³⁰⁾ 온양민속박물관, 앞의 책, 1989, 131쪽, 도판 13·14 轉載

³¹⁾ <迎日鄭氏>(1870) : 1830년에卒했는데, 1870年 男便 吳顯相과 合葬하면서 製作된 것이다. 函의 크기는 22.5cm×22.0cm×16.2cm이다. 아들이 誌石과 函을 製作했으며, 추가로 誌石을 埋納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先妣 贈貞敬夫人迎日鄭氏 庚寅十二月七日葬于櫻山五福洞 高祖判書公墓右岡 四十一年庚午四月十六日 移窆合附于五色堂 先考 贈崇政大夫左贊成嘉善大夫工曹參判公墓右良坐之原 庚寅誌二月納于壙 崇禎紀元後五庚午四月 日 不肖子取善謹追識”

<李延龜>(1906)³²⁾는 2벌을 마련한 경우인데 土製函 뚜껑에 “延安李君墓誌銘”이라는 表題文을 기록하고 있다. 이 2벌의 각 지식함 속에서 井間을 치고 글자를 새긴 8片的 靑畫白磁 誌石이 출토되었다.

4. 木製 誌石函

고려시대 지식은 품관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³³⁾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지식은 일반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黃璉>(1713)은 특이하게 나무로 된 木函인데, 앞의 <李延龜>(1906)처럼 2벌로 제작된 경우이다.³⁴⁾ 지식의 내용을 통해 장례 후 46년이 지나 再娶 礪山宋氏를 추가로 附葬할 때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木函에서 장방형의 靑畫白磁 誌石 8片이 출토되었으며 제작 당시 ‘品字壙’³⁵⁾으로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어 당시 墓制를 이해하는데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도 4. 黃璉(1713) 誌石과 誌石函⁴⁶⁾

32) <李延龜>(1906) : 土製 誌石函 속에서 8片的 靑畫磁器 誌石(14.7cm×20.0cm×2.0cm)이 出土되었다. 土製函의 크기는 22.0cm×24.0cm×14.0cm이다. 호림박물관 소장.

33) 金龍善은 高麗時代에 墓誌銘을 남긴 사람들을 性別과 身分別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男性 270명(僧侶 20명 포함), 女性 51명으로 나누었고 이들 모두가 官吏 출신의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女性 51명도 王妃 1명과 王族 출신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그들의 男便이나 친정아버지가 중앙의 官職을 가지고 있었으며, 20명의 僧侶들도 王族 출신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官吏의 子孫이거나 僧科에 及第하여 僧官職 혹은 僧階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밝혀두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高麗時代의 誌石은 貴族들의 遺物이라 볼 수 있으며, 高麗의 지배층에 있어서 誌石의 製作은 일종의 特權이었다고 볼 수 있다. 金龍善, 『高麗時代 墓誌銘 集成』, 翰林大學校出版部, 2001.

34) 葬禮 時에 誌石을 여러 벌로 製作한 예는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국립중앙박물관의 <金應壁>(1540)은 粉靑沙器 誌石(27.0cm×16.0cm)인데 3벌을 製作한 경우이다.

35) 品字壙이란 한 男便과 두 아내의 壙을 배치할 때 男便의 壙은 가운데, 두 부인의 壙은 左右에 배치하여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0, 82쪽.

현존하는 조선시대 지식함 가운데 磁器製函이 가장 많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磁器製函과 石製函이 당시 가장 많이 제작된 지식함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³⁶⁷⁾ 땅 속에 매납하면 짧은 시간에 부패되는 木函에 비해 石製函과 磁器製函은 보관하기 좋은 상태이고, 고가의 재질이므로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될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현존하는 木函은 <黃璉>(1713)의 1건 밖에 없지만, 당시에는 木函도 많이 제작되었을 것이라 본다(도 4).

Ⅲ. 誌石函 製作과 埋納

지식은 대개 葬禮期間에 준비해서 葬事 지내는 날에 壙의 앞이나 인근에 埋納한다. 지식을 보관하는 지식함 역시 그 시기를 같이 하는데, 제작과 매납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葬事 지내는 날에 돌조각 두 개를 써서 壙의 앞이나 가까운 곳에 埋納한다’고 여러 문헌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³⁶⁸⁾ 그리고 蓋石에는 <某官某公之墓>처럼 表題文을 기록하고 底石에는 피장자의 이력에 관련한 내용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³⁶⁷⁾ <黃璉>(1713) : 1667년에卒했으며 2별을 마련한 예이다. 土製函 2별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1별 : 17.5cm×23.5cm×14.8cm / 2별 : 17.5cm×25.5cm×14.6cm). 10年 후 初娶 金氏와 附葬했다가 다시 再娶 礪山宋氏를 추가 附葬했다. 黃璉의 誌石 마지막에는 墓의 風水에 관한 사항, 墓의 壙의 깊이, 黃璉과 後妻 宋氏 부인의 葬禮日, 그리고 두 부인과 葬禮 時에 品字壙으로 조성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 <申昇>(1665)의 경우처럼 이 때 사용한 石灰의 양도 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서울 쌍문동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0, 82쪽.

³⁷⁷⁾ 高麗時代의 경우를 보더라도 誌石이나 棺의 材質은 대부분 石製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誌石을 남긴 階層은 대부분 관리이거나 貴族階層이었다. 하지만 이규보의 아들 <(僧)李法源>(1221)의 경우를 보자. 중이 된지 16개월 만에 아들이 죽자 아버지 이규보는 ‘돌에 새겨 전하지 않고, 석 자되는 나무관에 銘을 새겨 무덤에 넣으려 하니 슬프다’고 적고 있다. “沙彌法源吾子也捨吾姓而從釋氏者也年十一投禪師規公祝髮爲納僧事師甚謹性警悟凡使令輒迎導其意不須頤指故師最愛之在寺暴得病至吾家臥一宵明日而化間三日瘞于山噫何其倏忽也如此歲金龍月黃鍾刺度年水馬律夾鍾反眞爲僧凡一十六月耳予遂爲曰僧其服一日足況二冬一夏汝死猶可” 金龍善, 『역주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出版部, 2001, 538쪽.

³⁶⁸⁾ 1883년에 작성된 “愼終錄”은 延安金氏 金文秀가 母親 草溪下氏의 葬事를 치르면서 그 과정을 작성한 葬事日記이다. 이 葬事日記에선 誌石을 製作하는 과정과 埋納節次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들 兄弟가 葬禮期間 중에 誌石을 製作하여 葬事 지내는 날에 埋納한 내용으로 보아 誌石은 대개 葬禮期間에 준비하고 葬事를 지내는 날에 埋納한다는 『國朝五禮儀』와 『朱子家禮』 그리고 『喪禮備要』, 『四禮便覽』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金時德, 『韓國 儒教式 喪禮의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65~67쪽 참조.

표 7. 文獻을 통해 본 誌石의 製作과 埋納 관련 記錄

文獻	記錄內容
世宗實錄	동실(東室)의 남쪽 7尺 가량 되는 곳에 땅을 5尺 파서 三物을 사용하여 밑을 쌓으니, 두께가 1尺 5寸인데, 誌石의 내면 사변(四邊)을 잠시 유회(油灰)를 발라서 자획(字畫)을 침근(侵近)하지 못하게 하고, 개석(蓋石)을 상합(相合)하고 또 유회(油灰)를 틈에 발라 동철(銅鐵)로 묶어서 그 위에 놓고, 三物으로써 사방과 상면(上面)에 천천히 견고하게 쌓아서 두께가 또한 각각 1尺 5寸이 된 후에 그친다. 또 본토로써 메워 쌓아서 한복판에 이를 묻는다. ³⁹⁾
國朝五禮儀	誌石의 재료는 개석(蓋石)과 저석(底石) 두 조각으로 사용하며 뚜껑에 관직이 있으면 ‘某官某公之墓’라 새기고,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字를 써서 ‘某君某甫’라 쓴다. 저석(底石)에는 姓名, 出生地, 出生年月日, 官役赴任地, 生沒年代, 葬地, 家族事項 등을 기록한다. 葬事 지내는 날에, 두 돌의 글자 쓴 면을 서로 향하게 해서 철사로 묶어 壙 앞의 가까운 땅에 묻되 3~4尺 사이로 한다. ⁴⁰⁾
朱子家禮	돌 조각 두 개를 쓴다. 그 하나는 덮개가 되는데 ‘有宋某官某公之墓’라고 새긴다. 葬事 지내는 날 두 돌에 글자가 있는 것을 서로 향하게 하고 철사로 묶어서 壙 앞의 가까운 지면의 3~4尺 사이에 埋葬한다. ⁴¹⁾ 묘소가 평지에 있으면 壙 안의 가까운 남쪽에 먼저 벽돌 한 겹을 깔고 誌石을 그 위에 놓는다. 만약 묘소가 험준한 곳에 있으면 壙의 남쪽으로 몇 자 사이에 4~5尺 깊이로 땅을 파서 이 방법에 의거하여 묻는다. ⁴²⁾
四禮便覽	돌 조각 두 개를 써서 葬事 지내는 날에 壙中 앞 가까운 곳에 묻는다. ⁴³⁾ 묘소가 평지에 있으면 壙 안의 가까운 남쪽에 먼저 벽돌 한 겹을 깔고 그 위에 誌石을 놓는다. 또 벽돌로 사방을 둘러싸고 그 위를 덮는다. 만약 산기슭 험준한 곳에 있으면, 관의 남쪽으로 몇 자 사이에 4~5尺 깊이로 땅을 파고 위 방법대로 묻는다. 벽돌 誌石을 사용한다면 돌 상자에 담아서 묻거나 나무상자에 담아 石灰를 섞은 것으로 상하 사방을 바르는 것이 좋다. ⁴⁴⁾

조금 더 자세하게 『朱子家禮』와 『喪禮備要』에 나타난 誌石圖를 살펴보자(도 4).

39) 『世宗實錄』卷113, 世宗 28年 7月 19日(乙酉): “東室南七尺許堀地 五尺用三物築底, 厚一尺五寸以誌石內面四邊 暫塗油灰 勿使侵近字畫 蓋石相合 又塗油灰於隙 以銅鐵束之 置其上 以三物 四方及上面 徐徐堅築 厚亦各一尺五寸而止 又以本土填築埋之 正中近南置石床 左右豎望柱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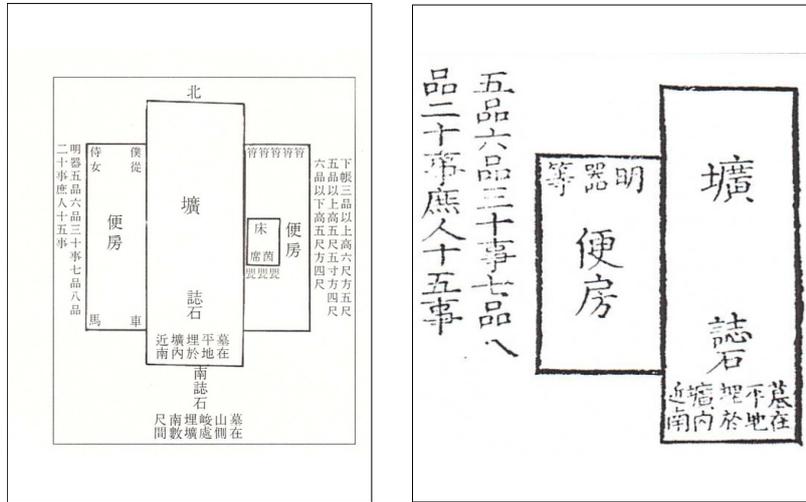
40) 『國朝五禮儀』卷之八, 凶禮 大夫士庶人喪 刻誌石: “用石二片 基一爲蓋 刻云 某官某公之墓... 葬之日以以石字面相向而以鐵束之壙前近地面三四尺間”

41) 『朱子家禮』卷4, 喪禮 「治葬」 刻誌石: “用石二片 基一爲蓋 刻云 ‘有宋某官某公之墓’ 無官者, 則書基字曰 ‘某君某甫’ 其一爲底 刻云 ‘有宋某官某公諱某字某州某縣人 考諱某某官 某氏某封某某年月日生 敘歷官遷次某年某月日 終某年月日 葬於某鄉某里某處 娶某氏某人之女 子男某某官 女適某官某人’ 婦人不在則蓋云 ‘有宋某官姓名某封某氏之墓’ 無封則云 ‘妻’ 夫無官 則書夫之姓名. 夫亡則云, ‘某官某公某封某氏’ 夫無官 則云 ‘某君某甫妻某氏’ 其底敘年若于適某氏 因夫子致封號 無則否 葬之日 二以石字而相向 而以鐵束束之 埋之壙前近地面三四尺間”

42) 『朱子家禮』卷4, 喪禮 「治葬」 下誌石: “墓在平地 則於壙內近南 先布磚一重 置石基上 又以磚四圍之 而覆基上 若墓在山側峻處 則於壙南數尺間 堀地深四五尺 依此法埋之”

43) 『四禮便覽』卷之五, 喪禮 「治葬」 刻誌石: “用石二片 葬之日埋之壙前近地”

44) 『四禮便覽』卷之五, 喪禮 「治葬」 下誌石: “墓在平地 則於壙內近南 先布磚一重 置石基上 又以磚四圍之 而覆基上 若墓在山側峻處 則於壙南數尺間...”



도 5. 『朱子家禮』誌石圖와 『喪禮備要』圖十四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仁川李氏>(1456)의 경우, 封墳의 전면 護石과 床石 사이에서 지식함이 출토되었다.⁴⁵⁾ 즉 墓墳의 3~4尺 앞, 護石과 床石의 정중앙에 지식함을 매납한 것으로 보아 『國朝五禮儀』⁴⁶⁾나 『朱子家禮』誌石圖의 기록을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墓墳의 남쪽 하단에 위치하여 『喪禮備要』圖十四에 수록된 誌石圖의 형식을 그대로 잘 따른 예이다. <仁川李氏>(1456)를 비롯해 <柳廷亮>(1663), <鄭致達>(1757)도 墳의 앞이나 남쪽에서 출토되고 있어 왕실과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제시한 『朱子家禮』와 『國朝五禮儀』의 규범에 따라 매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⁷⁾

18세기 접어들면 지식의 埋納은 현실적인 방안을 감안하여 점차 시속과 부합되어 유연한 방법을 취하게 된다.⁴⁸⁾ 앞의 문헌들⁴⁹⁾에서는 墳 앞이나 남쪽에

45) 金世眞,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研究』,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27~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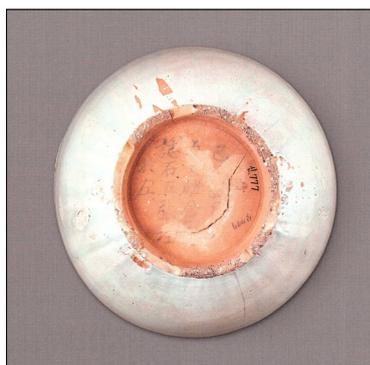
46) 『國朝五禮儀』(世宗 28年, 1446)에서는 葬事지내는 날에 두 돌의 글자 쓴 면을 서로 향하게 해서 철사로 묶어 墳 앞의 가까운 땅, 즉 3~4尺 사이에 묻는다고 誌石의 埋納方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國朝五禮儀』卷之八, 凶禮 大夫士庶人喪 刻誌石: “用石二片 基一爲蓋 刻云某官某公之墓...葬之日以石字面相向而以鐵束之墳前近地面三四尺間”

47) <仁川李氏>(1456): 正一品, 1456年 7月 4日 70세 卒하여 그 해 10月 8日 葬禮(四月葬), <柳廷亮>(1663): 正一品, 1663年 4月 22日 62세 卒하여 그 해 6月 19日 葬禮(三月葬), <鄭致達>(1757): 正一品, 1757年 2月 5日 20세 卒하여 그 해 4月 25日 葬禮(三月葬). 모두 葬禮시 製作했으며 品階 또한 正一品의 最高位層에 속한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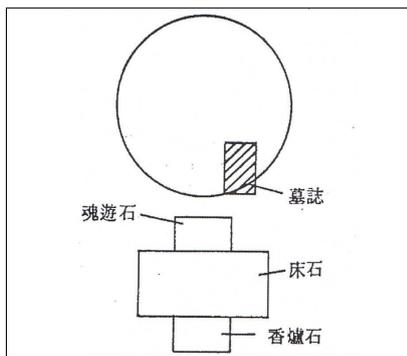
48) 金世眞, 앞의 논문, 2009, 29쪽.

49) 『國朝五禮儀』卷之八, 凶禮 大夫士庶人喪 刻誌石: 『朱子家禮』卷4, 喪禮, 「治葬」, 下誌石: “葬

매납한다고 하였지만 <金在昌>(1849)과 <金尙鏞>(1677)은 壙의 左·右側に 매납한 경우이다.



도 6. 金在昌(1849) 誌石函 바닥 굽



도 7. 金尙鏞 誌石 埋納位置 平面圖⁵⁰⁾

먼저 壙의 左側に 매납한 <金在昌>(1849)은 葬禮 시 제작했는데 지식함 바닥 굽의 밑 부분에 ‘기유년(1849년) 4월 沙盒에 지식 5장을 넣어 墓의 左側に 매납한다’는 기록이 있다(도 6).⁵¹⁾ <金在昌>(1849)과 달리 <金尙鏞>(1677)은 壙의 右側에서 지식함이 출토되었다(도 7). 卒한지 12년 후, 부인은 卒한지 3개월 만에 合葬하면서 제작해 매납했는데, 蓋石板과 底石板의 글자 쓴 면을 서로 향하게 하여 壙 앞 右側 약 1m 정도 깊이에 4개의 石板으로 石函을 만들고 지식을 相合하여 넣은 다음 뚜껑돌로 덮어 묻음으로써 지식함 속의 지식을 잘 보호하고자 했다.⁵²⁾

이와 달리 葬禮 후 세월이 흘러 제작한 경우, 壙 中에 매납되지 않고 壙 外에 매납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⁵³⁾ 대표적인 예로 17세기 <沈宗

之日以石字面相向而以鐵束之壙前近地面三四尺間”『四禮便覽』卷之五 喪禮「治葬」刻誌石：“葬之日埋之壙前近地”『朱子家禮』卷4, 喪禮, 「治葬」, 刻誌石：“葬之日二以石字而相向而以鐵束束之 埋之壙前近地面三四尺間”

50) 姜大德, 앞의 논문, 1986, 84쪽, 삼도 1 轉載.

51) 誌石函(高 22.4cm)은 1849년 2월에 製作되었으며, 誌石函의 바닥 굽 밑에는 “己酉四月五日沙盒誌石五葬埋於左”라 쓰여 있다. 이를 통하여 이 函은 1849년에 만든 金在昌 誌石의 보관용 函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0, 165쪽.

52) 姜大德, 앞의 논문, 1986, 82~84쪽.

53) 여러 가지 이유로 葬禮를 치른 다음에 誌石이 완성된 경우, 誌石은 壙中에 埋納되지 못하고 封墳의 바깥부분에 묻히게 되는데, 이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곳이 床石 밑이나 床石 주변이다. 金右臨,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37~39쪽.

忱>(1662)과 <沈僂>(1655)을 들 수 있다. <沈宗忱>(1662)은 墓碣 뒤에서, <沈僂>(1655)은 墓碣의 下部構造 뒤편에서 지식함이 발견되었다.⁵⁴⁾ <표 8>은 세월이 흘러 개장이나 이장,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작하여 매납한 경우이다.

표 8. 葬禮를 치르고 세월이 흘러 製作한 경우

NO	被葬者	生沒年代	製作年代	備考
1	沈僂	1570~1456	1655	葬禮 후 25년(부인과 合葬)
2	沈宗忱	1553~1614	1662	葬禮 후 48년(부인 丹陽禹氏와 合葬)
3	金尙鍊	1600~1665	1677	葬禮 후 12년(부인 崔氏와 合葬)
4	李厚源	1598~1660	1685	葬禮 후 25년(부인 光州金氏와 合葬)
5	沈之源	1593~1662	1691	葬禮 후 29년(두 부인(權氏, 尹氏) 合葬)
6	星州李氏	1651~1671	1691	葬禮 후 20년(男便 沈益昌과 合葬)
7	洪聖民	1536~1594	1710	葬禮 후 116년
8	泗川陸氏	1657~1699	1712	葬禮 후 13년(男便 沈益昌과 合葬)
9	黃璣	1634~1666	1713	葬禮 후 47년(再娶 礪山宋氏 合葬)
10	沈益善	1627~1696	1727	葬禮 후 31년(부인 南陽洪氏 合葬)
11	鄭龜應	1545~1567	1738	葬禮 후 171년(玄孫 鄭齊斗 製作)
12	全州李氏	? ~ ?	1753	葬禮 후 6代孫이 製作
13	金聖梓	1698~1767	1853	葬禮 후 86년(부인 延安李氏 合葬)
14	金賢根	1810~1868	1870	葬禮 후 2년(明溫公主와 移葬合葬)
15	迎日鄭氏	? ~1830	1870	葬禮 후 40년(男便 吳顯相과 移葬合葬)
16	姜愼	1745~1808	1872	葬禮 후 64년(孫子 姜洙가 製作)
17	金海許氏	1835~1878	1879	葬禮 후 1년(男便 金炳國과 移葬合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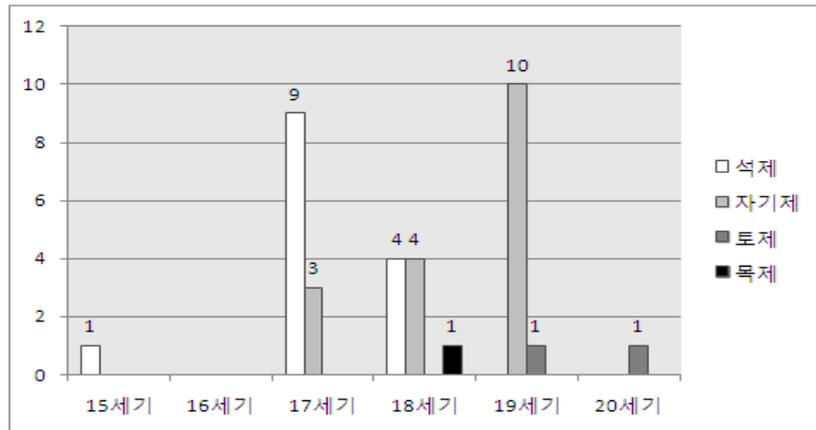
이처럼 葬禮期間이 끝난 후 세월이 흘러 아들이나 손자들에 의해 제작된 경우, 壙 外에 埋納하고 있음을 여러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식의 일반화와 더불어 장례를 먼저 치르고 아들이나 후손들에 의해 지식을 제작하였던 당시의 葬禮風習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 진다.

54) <沈宗忱>(1662)은 1614년 7월에 卒하여 12월에 坡州에 葬事를 치렀다. 葬禮 후 48년이 지나서 부인 丹陽禹氏와 合葬 시 製作 되었다. 墓碣 뒤에서 誌石函(47.0cm×42.0cm×9.0cm)이 발견되었는데, 函속에서는 誌石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函과 甕 사이에는 흙이 채워져 있었다. 誌石은 魂遊石을 드러내고 난 후 약 10cm 깊이에서 6편이 발견되었다. <沈僂>(1655)은 沈之源의 父親으로 葬禮 후 25년이 지난 뒤 부인과 雙墳을 조성하였다. 誌石函은 墓碣의 下部構造 뒤쪽에 위치해 있었다. 葬地는 京畿道 坡州이며 誌石은 封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1편이 발견되었다. <沈宗忱>(1662)처럼 誌石函은 花崗巖 材質의 板石 4장을 組合하여 만들었으며 발굴 당시 函 속에서 誌石은 발견되지 않았다. 京畿道博物館, 앞의 책, 110~234쪽 참조.

IV. 時期別 特性

15세기부터 지석을 별도로 보관하는 函이 나타는데 이것은 <仁川李氏>(1456)의 石製 誌石函이 확인된 사례를 통해 15세기부터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석함의 재질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이 시기엔 <仁川李氏>(1456) 외 또 다른 지석함은 전하지 않고 있어 『朱子家禮』의 중요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되었지만 아직 정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지석함 제작은 왕실 및 고위 관직자 일부에서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즉 15세기는 『朱子家禮』의 보급과 『經國大典』, 『國朝五禮儀』의 편찬 등으로 제 분야에서 유교국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된 시기라 볼 수 있다.

표 9. 時期別로 살펴본 誌石函의 材質



이후 조선왕조가 혼란기를 거치는 16세기는 지석함이 나타나지 않다가⁵⁵⁾ 17세기 접어들면 많은 家禮書⁵⁶⁾가 편찬되고, 喪葬禮의 비중을 강화하고, 『朱子家禮』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수량면에서 대폭 증

⁵⁵⁾ 16세기는 정치적으로 朝鮮王朝가 混亂期를 거치는 시기이다. 즉 전쟁은 誌石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이 시기는 靑書顏料의 수급이 어려워 王室에서 주로 사용하던 靑書白磁 誌石의 製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급에 용이했던 鐵書顏料가 靑書顏料를 대신하게 되어 많은 수량의 鐵書白磁 誌石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한다. 연구자의 분석결과, 誌石函 속에서 출토되는 誌石은 대부분 靑書白磁 誌石인데, 16세기에 誌石函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시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보여 진다.

⁵⁶⁾ 많은 家禮書들

가한다. 하지만 이 시기 등장하는 지식함은 대부분 石製函이다<표 9>. 이 石製函은 磁器製函에 비해 운반과 제작이 어렵고 제작 경비도 많이 소요되는⁵⁷⁾ 최상급의 보관시설이기 때문에 왕실이나 일부 사대부 층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은 전 시기동안 나타나는 지식함을 품계별로 살펴 본 경우이다.

표 10. 品階別로 살펴본 誌石函의 材質

品階 材質	정1품	정2품	정3품	정4품	정5품	정6품	無職	未詳	總計
	중1품	중2품	중3품	중4품	중5품	중6품			
石製	7		4				1		14
	1					1			
磁器製	2	3	1		1		1	4	17
	4	1							
土製								1	2
		1							
木製					1				1
總計	14	5	5		2	1	2	5	34

<표 10>을 통해서도 지식함은 대부분 三品 이상의 고위 관직자에 한정되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貞徽翁主>(1663)나 <申昇>(1665)처럼 지식함이 表題文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경우를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처럼 지식함 뚜껑에 간단하게 表題文을 새기는 경우는 19세기까지 계속 나타나며 石

冊名	著述者	年代	分量	內容
喪禮備要	金長生	1583	2卷 1冊	申義慶의 草本을 보완하여 완성
喪禮備要補	朴建中	필사본	12卷 8冊	喪禮備要를 보충 해석
喪禮四箋	丁若鏞	필사본	60卷	전반적인 喪禮에 대하여
喪禮便覽	金鼎柱	필사본	2卷 1冊	喪禮를 해설
家禮輯覽	金長生	1599	10卷 6冊	중국 家禮에 우리 예절을 붙여 해설
家禮諺解	申湜	1632	10卷 4冊	중국 家禮를 한글로 풀이
家禮考證	曹好益	1646	7卷 3冊	중국 家禮를 해설
儀禮問答	金長生	1646	4卷 4冊	禮에 관한 문답
儀禮問答	尹拯	필사본	8卷 4冊	예절에 관한 의문점 문답식 풀이
儀禮問答	金集	?	1冊	儀禮問答를 보충
家禮增解	李孟宗	1792	1冊	중국 家禮의 變禮해설
家禮註解	李德弘	1829	8卷 1冊	중국의 家禮를 註解
四禮正變	金景游	1836	14卷 7冊	四禮의 발달과정을 설명
四禮便覽	李緯	1844	8卷 4冊	金長生의 禮設을 실행중심으로 옮김

吳任淑, 앞의 논문, 2012, 23쪽에서 재인용.

⁵⁷⁾ 宣祖 33年(1600) 7月 7日의 記錄에 의하면 당시 石材를 採石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運搬 및 磨研, 刻手 등 製作과정에 따른 인력낭비와 함께 시간적, 물질적 소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宣祖實錄』卷127, 宣祖 33年(1600) 7月 7日(戊申): “誌石所造之石 當伐出於忠州 而伐取之役 極爲浩大 今聞宣陵改葬時所用誌石 將爲磨造之際 因有舊誌石完全 故不用新石 尙埋置于陵內云 若取此用之 則當此民力蕩竭之時 庶可以除一分之弊 取用便當 敢稟”

製를 비롯해 磁器製, 土製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18세기는 일반인들에 대한 禮의 보급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朱子家禮』가 완전히 정착되었던 시기였다. 재질은 이전의 石製函에서 磁器製函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며 대량 제작이 이루어진다. 지식 또한 磁器製 誌石의 영향으로 점차 소형화되고 장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製作時期와 埋納에 있어서도 조선 초기처럼 壙 앞이나 인근, 즉 일정한 장소에 구축되어 매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감안하여 편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매납하였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즉 조선 초기엔 당시 국가에서 제시한 『國朝五禮儀』나 『朱子家禮』의 기록대로 잘 따랐지만 18세기 접어들면 장례가 끝나고 세월이 흐른 뒤 매납하는 경우가 많아 壙中 외 床石 밑이나 그 주변에 많이 매납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접어들면 다양한 磁器製函이 등장하며 지식도 어느 정도 규격화가 이루어진다.⁵⁹⁾ 특히 고위 관직자 사이에선 전형적인 장방형에서 벗어나 圓板形 誌石이 대유행을 한다. 지식함 또한 이 원판모양의 지식 크기에 맞추어 제작을 하였으며, <金聖梓>(1853)와 <金安默>(1853)처럼 장편의 靑畫白磁 誌石을 函 속에 넣고 있다.

표 11. 19세기 유행한 磁器製 盒形 誌石⁵⁹⁾



⁵⁹⁾ 誌石 規格도 가로 15.0~18.0cm, 세로 20.0~22.0cm, 두께 1.0~2.0cm 정도로 어느 정도 規格化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吳任淑, 앞의 논문, 2012, 171쪽.

⁵⁹⁾ <吳致瑞>(19C) : 高 25.0cm 口徑 15.3cm 底徑 10.7cm. 2개가 1쌍을 이루는 좁고 높은 盒 형태의 誌石이다. 盒 자체에 誌文을 새긴 형태로 外面에 靑畫로 “同福吳氏誌石”라 새기고, 吳致瑞와 그의 두 부인(仁同張氏과 玄風郭氏)의 墓所에 대해 記錄하고 있다. 두 부인을 上下로 合葬했다는 內容인데, 吳致瑞의 墓는 移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박물관 소장. <張雲行>(1850) : 高 8.5cm 口徑 21.0cm. 表題文의 주위 굽을 따라 연꽃문양을 장식하였으며, 그 사망에 坐向 등 風水에 관한 내용을 記錄하였다. 表題文이 “朝鮮國義州府學生安東張公墓誌”로 시작하고 있어 葬地가 平安北道 義州임을 알 수 있고, 玄孫이 製作해서 墓石 아래에 埋納한다고 밝히고 있다(“道光三十年庚戌十月 玄孫孝鑄謹識 納于墓石下”).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張文奎>(1850) : 高 8.5cm 口徑 21.0cm. 張雲行(1850)처럼 뚜껑에 ‘上’을 써서 윗면임을 표시하였고, 表題文의 주위 굽을 따라 연꽃문양을 장식하고 그 사망에 坐向 등 風水에 관한 내용을 記錄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이러한 현상은 위의 <표 11>처럼 당시 磁器製 盒形 誌石이 유행함에 따라 盒에 넣을 수 있는 작은 규격의 지석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19세기 이후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禮에 의한 제반 규범이 법적인 기능을 상실하면서 『朱子家禮』는 점차 그 설자리를 잃어가게 된다. 20세기는 근대화와 더불어 지식의 제작도 현저히 감소하며 <李延龜>(1906)를 마지막으로 지식함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V. 맺음말

지석은 被葬者의 인적사항이나 墓에 대한 기록을 새겨 葬禮節次 마지막 단계에 땅 속에 埋納한다. 이 지석을 그대로 땅 속에 묻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되거나 부식될 우려 등이 있다. 때문에 지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函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보관시설을 대개 誌石函이라 부른다. 지식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지식함의 재질을 石製, 磁器製, 土製, 木製로 나누어 분류를 하였다. 그 결과 전 시기동안 磁器製函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뒤이어 石製函, 土製函, 木製函 순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땅 속에 매납하면 짧은 시간에 부패되는 木製函에 비해 지금까지 보존될 확률이 높았던 磁器製函과 石製函이 당시 가장 많이 제작된 지식함이라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어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가장 먼저 등장하는 <仁川李氏>(1456)를 통해 지식함은 15세기부터 제작되어졌으며 17세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石製函에서 磁器製函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는 18세기 이후부터는 대량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세기 접어들면 고위 관직자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圓板形 誌石이 대유행을 한다. 이 원판형 지석은 대부분 별도의 磁器製函을 만들었는데, 이 函도 원판의 모양과 크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였다. 또한 품계별 분석에선, 지석의 일반화와는 달리 지식함은 대부분 三品 이상의 고위 관직자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식함의 재질과 상관없이 函 속에는 대부분 장편의 靑書白磁 誌石을 넣고 있어 지식함의 수요층은 대부분 왕실을 비롯한 고위 관직자에 한정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석은 ‘葬禮期間에 준비해서 葬事지내는 날 壙의 앞이나 인근에 埋納한

다'고 『國朝五禮儀』나 『朱子家禮』, 『喪禮備要』 등 여러 문헌에서 밝히고 있다. 이 지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지식함 역시 葬事 지내는 날, 지식과 함께 壙의 앞이나 인근에 매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 제시한 『朱子家禮』와 『國朝五禮儀』 그리고 『喪禮備要』의 규범에 따라 매납하였지만 18세기 이후가 되면 지식의 매납은 현실적인 방안을 감안하여 壙의 左·右側 또는 壙中에 매납되지 않고 床石 밑이나 床石 주변, 즉 壙外에 매납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식의 일반화와 더불어 장례 후 세월이 흘러 지식을 제작 하였던 당시의 葬禮風習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지식함 뚜껑에 간단하게 表題文을 새긴 경우도 살펴보았다. 이처럼 지식함이 表題文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를 石製函, 磁器製函, 土製函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誌石函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이다. 따라서 지식함과 函속에 매납된 지식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세부적인 작업은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믿는다.

■ 투고일 2014년 7월 18일 |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6일 ■

참고문헌

<史料>

『國朝五禮儀』

『經國大典』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국내>

崔虎林, 『朝鮮時代 墓誌의 種類와 形態에 관한 研究』, 『文化財』17, 1984.

姜大德, 『朝鮮時代 江陵地方 墓誌 小考』, 『嶺東文化』2, 關東大嶺東文化
研究所, 1986.

溫陽民俗博物館, 『安東金氏墓域發掘調查報告書』, 1989.

張哲秀, 『誌石의 發生에 대한 一考察』, 『先淸語文』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과, 1989.

國立民俗博物館, 『韓國의 喪葬禮』, 1990.

裴永東, 『朝鮮時代 墓誌의 性格과 變遷』, 『朝鮮時代 誌石의 調查研究』,
溫陽民俗博物館, 1992.

溫陽民俗博物館, 『朝鮮時代 誌石의 調查研究』, 1992.

鄭鐘秀, 『朝鮮初期 喪葬儀禮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出版部, 2001.

高麗大學校博物館, 『坡平尹氏 貞靖公派 墓域 調查報告書』, 2003.

李閏熙, 『京畿 坡州地域 出土 誌石 研究』, 中央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國立中央博物館, 『다시 보는 역사편지 高麗墓誌銘』, 2006.

金右臨,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研究』, 高麗大學校 博
士學位論文, 2007.

金時德, 『韓國 儒教式 喪禮의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金世眞,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研究』,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京畿道博物館, 『坡州 沈之源 墓 및 神道碑 遺蹟』, 2010.

國立中央博物館, 『삶과 죽음의 이야기 朝鮮墓誌銘』, 2010.

- 趙源喬, 『조선시대의 墓誌·墓誌銘 연구』, 『삶과 죽음의 이야기 朝鮮墓誌銘』, 2010.
- 李孝鍾,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朝鮮 墓誌銘에 대한 기본적인 檢討』, 『歷史資料總書11, 朝鮮墓誌銘1』, 2011.
- 國立中央博物館, 『朝鮮墓誌銘 I』, 2011.
- _____, 『朝鮮墓誌銘 II』, 2012.
- 吳任淑, 『조선시대 誌石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Abstract

A Study on Memorial Stone Boxes in the Joseon Dynasty

Oh, Im-Suk

Once born, people are bound to die someday and there are some people trying to leave traces of their lifetime after death. A memorial stone is one of the means leaving traces of their lifetime. A memorial stone can be said to be the history of a person because a lot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social status or lineage, marital status etc. of the buried person is recorded in it from birth to burial after death. In Korea, memorial stones appeared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the memorial stone culture bloomed in earnest as many ordinary people participated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Joseon Dynasty unlike Goryeo, a memorial stone box was prepared in many cases to store a memorial stone safely rather than burying it in the ground.

First, materials of a memorial stone box appear to be various such as stone material, ceramics material, soil material, wood material etc. However, the analysis by rank shows that it was mostly produced limited to senior officials of 3rd rank or higher.

And 『Annals of King Sejong』, 『Gukjooryeui』, 『Jujagarye』, 『Sangryebiyoo』, 『Saryebyoenram』etc. reveal that memorial stones are produced and buried in front of or near the shed on a burial da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 memorial stone box for storing a memorial stone safely was also prepared during the funeral period and buried in front of or near the shed on a burial day.

This memorial stone box appeared from the 15th century but was produced only for some royal and senior officials in the contemporary atmosphere at that time. This implies that the importance of 『Jujagarye』 was emphasized at the national level but did not reach the complete

settlement stage. And then, it hardly appeared in the 16th century and increased after the 17th century and significantly increased around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showing the aspect of changing its form from the previous stone box to ceramics box. Especially in the 19th century, their own unique disk-shaped memorial stone was all the rage among senior officials. Mostly, a separate box for storing a memorial stone was made and the box was produced according to the shape and size of the disk-shaped memorial stone. In addition, a memorial stone box also played a role of title statement and these examples are very interesting because they can be found in ceramics, soil box including stone material box.

Key Words : epitaph, funeral, memorial stone, memorial stone box, title statement, buried person